

19세~39세 미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교육과 김 소 영

문제제기

-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인구 증가와 청년세대의 취업난, 비혼 및 만혼 현상의 확산은 성인기 자녀가 독립하지 못한 채 중·노년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켄거루족을 양산하고 있음
- 이는 중·장년층 부모세대에게 이중부양의 부담을 안겨주며 노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인자녀간 갈등 유발의 위험이 크다는 측면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혼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어떠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에서 39세 사이 미혼여성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성인자녀지원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연구결과

<표 1> 19-39세 미혼 여성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인식 경향			단위: 빈도(%)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줘야 한다	429(30)	794(57)	171(12)	11(1)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108(8)	651(46)	586(42)	60(4)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77(5)	817(58)	460(33)	51(4)

<표 2> 19-39세 미혼 여성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인식 관련 요인	
	Coefficient
연령	-.007(.01)
현재 일을 하고 있음	-.20(.09)*
첫째 자녀임	.11(.08)
15세 무렵 가정 형편	.04(.07)
15세 무렵 부모님의 양육태도	.02(.06)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이 있음	.05(.10)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08(.02)***
비전통적인 결혼·가족 가치관	-.03(.01)*
상수	7.77(.51)***

* $p<.05$, *** $p<.001$

연구방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20년에 수집한 여성가족패널 8차년도 자료에서 19세에서 39세 사이 미혼여성 1,405명의 데이터를 추출함
- 부모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줘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의 3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한 4점 리커트 척도의 값을 합산하여 측정
-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형제자매관계(첫째 여부), 부모와의 관계(현재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유무), 성장배경(성장 과정에서 15세 무렵의 가정형편, 부모의 양육태도), 성역할 태도, 결혼·가족 가치관
- 기술통계, 회귀분석 실시

논의

- 응답자의 87%가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였고, 54%가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였으며, 63%가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미혼 여성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성역할 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결혼·가족 가치관은 전통적일수록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현재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
 -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는 ‘맛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와 같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 미혼인 여성들은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수용함으로써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9세부터 39세 미혼 청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와 결혼·가족 가치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청년 미혼 여성의 성인자녀지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서로 이질적인 가족 관련 규범과 의식이 혼재된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들이 자신의 편이에 따라 이러한 규범과 의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인자녀의 부모의존 현상을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